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은 뒤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 그리고 외워 보세요.

윈스턴 처칠

출처: 조선일보 2017년 5월 30일

우리는 받아서 삶을 꾸려나가고, 주면서 인생을 꾸며나간다.

이가라시 미키오

출처: 조선일보 2017년 8월 3일

즐거운 일은 끝나지만, 괴로운 일도 끝난다.

괴테, 『젊은 베르테르의 슬픔』

출처: 조선일보 2018년 1월 5일

훌쩍 떠나온 것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.
친구여.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.

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